

투데이

新年辭

다시 새해가 밝았다. 힘들고 고단했던 임진년(壬辰年)의 아픔을 뚫고 계사년(癸巳年) 첫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마음은 어느 때 보다 착잡하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지역민들의 불안과 상실감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당한 그 지긋지긋한 소외와 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연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의 상처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호남 등 특정지역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말을 주목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슬기롭게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왔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분수령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어 광주·전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는 2월 말이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號)를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안고 있는 역사적 책무는 막중하다. 차기 정부의 성격과 정책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다. 올해 최대의 화두는 단연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물론 당선 이후에도 새 정부의 첫 번째 화두로 ‘대통합’, ‘대방

아갈 수 없다.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접고, 관공과 상생으로 소통하면서 대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문제, 민생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 만성화된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감, 농담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고물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내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가 안위도 여전히 걱정스럽다. 반세기 만에 이뤄진 남북 대화의 통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막혔고,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로켓 발사와 핵문제 등 북한의 잇단 강경책으로 한반도는 냉전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일본은 더욱 우경화로 치닫고, 북중 간

각종 규제가 해제돼 수도권 집중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결과제다.

광주·전남도 올해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 4월 20일부터 열리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 5월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10월 F1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첫 삽을 뜬 서남권관광메저도시(J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공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완공, 무안공항 활성화 등 지역의 대형 현안들이 올해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전 지역민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올해 61주년을 맞는 광주일보는 새해 지역의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낙후된 광주·전남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새해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 서로 돕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한해로 만들자. 고비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 서 구해냈던 호남인이 이제 저력을 발휘할 때다.

지역 역량 결집해 도약의 시대 열자

평', '100%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에는 화합과 통합을 내세웠지만 결국 실패에 그쳐 빛을 발하지 못했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며, 이념과 세대·계층간 갈등도 이변 대선을 통해 더 극명해졌다. 따라서 이 같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미래로 한 발짝도 나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잡고 있지만 대외경제 불안 속에 이마저 여의치 않다. 경제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다시 뛸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 창

의 결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미·중·일·러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고,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선 안 된다.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안보태세의 획기적 강화와 병행해 정치·외교적 해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지방은 최대의 피해자였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실패되면서 지방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수도권의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소설-김설옥 **슈게이징** (서울시 서당 1등)
- ▲시-김승필 **삼거리 점방** (광주시 신가동)
- ▲동화-이현주 **내 동생 삐딱이** (청주시 북대 2등)

광주시장·전남지사 新年辭

“글로벌 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 높이자”

강운태 광주시장

새해에도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의 3대 축을 시정의 기조로 유지하면서, 상생과 도약을 통해 광주가 또 한번 큰 도약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 채택된 우리 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여 광주공동체의 도약과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글로벌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2015 국제디자인연맹총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이 보유한 사회적 자산과 정책수단을 창의적으로 재설계하여 일자리, 복



지, 문화, 인권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광주형 행복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투자유치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경제영역을 확장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시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우리는 위대한 도시 광주의 밝은 미래를 현실화시키고도 남을 역량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문화자원 국제수준으로 개발”

박준영 전남지사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후퇴와 새 정부에서 바뀔 국경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전남이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서로 의지해 사는 훈훈한 공동체를 일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되고 소외받은 땅이라는 운명을 떨쳐내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친환경농수축산업과 여수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대회,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도 올해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4월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해양과 문화자원을 국제수준으로 개발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도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시는 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적 전담을 확대해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꿈을 꾸시다. 지혜를 모으시다. 그리고, 힘을 모으시다.



민주 신임 원내대표에 박기춘... 이달초 비대위원장 선출

민주통합당은 지난 28일 대선 패배 충격과 후유증을 수습할 신임 원내대표로 박기춘 의원(3선·경기 남양주을·사진)을 선출했다. <관련기사 6면> 박 의원은 대선 패배의 충격과 후유증을 조기 수습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야할 중책을 맡게 됐다. 또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정부조



직 개편과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박 의원은 그러나 업무 효율을 위해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공약하고 자신은 원내대표를 맡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은 조만간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민주당을 뱃속까지 바꿔나가겠다. 민주당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뿌리깊은 계파-파벌 문화를 없애고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희망 새해 사자성어는 '제구포신(除舊布新)'

교수들이 2013년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을 뽑았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10~19일 전국 대학교수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0%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을 선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제구포신은 '춘추좌전'에 나오는

말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이다. 새해 사자성어를 추천한 박명진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대선을 통해 고질적인 지역 갈등과 이데올로기 갈등, 계층갈등이 심화됐다”며 “새 정부는 구악을 퇴치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라고 선택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건강한 해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며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넓고 쾌적한 새로운 환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광주현대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91(용봉동) 북부경찰서와 용봉IC 사이
대표전화 | 062-570-0114 | 응급실 | 062-570-0119

■ 진료시간 : 평일 오전 09:00~오후 6:00 ■ 토요일 : 오전 9:00~오후 1:00
■ 응급실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